

“다음세대, 미래의 교회 세운다!”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2023 차세대 교사 모집’ 행사
서빙고 86명, 양재 60명, 도곡 26명, 사랑부 50명



차세대 아이들이 2022 어드벤처 ‘예수님 이야기’에 참석해 활짝 웃고 있다.

다음세대, 미래의 교회 세우는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를 모집한다. 오는 11월 12일(토)부터 20일(일)까지 ‘2023 차세대 교사 모집’ 행사가 열린다. 서빙고온누리교회 86명, 양재 온누리교회 60명, 도곡교육관 26명, 사랑부 교사 50명을 모집한다.

2023년 차세대 교사 모집 행사에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13일과 20일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로비에 설치되는 데스크에서 지원하면 된다. 우측에 있는

QR 코드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차세대 교사 모집 행사 주간 온누리교회 예배에서는 차세대 교사의 간증과 특선이 이어진다.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를 제외한 캠퍼스 차세대 교사 모집 행사는 각 캠퍼스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나를 살리는 일”이라며 “차세대를 세우고 나를 살리는 차세대 교사로 성도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권면했다.

2023년 신입 차세대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사사명교육’도 열린다. 온라인 교사사명교육은 12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Zoom으로 진행된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및 도곡 02-570-7436

사랑부 02-3215-226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CGNTV 프랑스 지사 개소

프랑스, 아프리카 불어권
53개국 미디어 선교

CGNTV 프랑스 지사가 개소했다. 지난 11월 7일 프랑스 파리침례교회에서 CGNTV 프랑스 지사 개소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에는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 프랑스 한인 목회자 선교사 등 130명이 참석했다.

CGNTV 프랑스 지사는 파리를 거점으로 프랑스와 아프리카 불어권 53개 국가에서 미디어 선교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현지 목회자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 아프리카 북서부 ‘마그레브’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등) 지역의 난민 선교, 아프리카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읽기 및 주일학교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역 진행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접근이 어려운 보안지역 등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셋업박스 ‘드림온플러스’도 보급할 계획이다.

오성환 지사장(CGNTV 프랑스)은 “불어권 국가에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다”면서 “그곳에서 CGNTV가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 김영선 기자

수능당일기도회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수능당일기도회’를 개최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1월 17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수능당일기도회가 이어진다. 수험생들과 동일한 일정으로 기도회를 진행한다. 수능당일기도회는 차세대사역본부 소속 목회자들이 인도한다.

11월 비전헌금

11월 12일(토)과 13일(주일) 봉헌하는 11월 비전헌금은 ‘새희망나루교회’를 돕는데 사용한다. 새희망나루교회는 남과 북, 디아스포라와 열방의 성도들이 모여 통일 한국과 열방의 회복을 이뤄가는 예배공동체다. 건물주로부터 올해 12월까지 건물을 비워달라는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고 급하게 새로운 장소를 찾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동의회

일시: 11월 20일(일) 3부 예배 후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안건: 임직후보자 및 장로후보자 투표

“당신 인생의 기획의도를 알려드립니다!”

방송작가 위한 맞춤전도집회 ‘전지적 작가 시점 THE STORY’
11월 23일 오후 6시 30분 63빌딩 ... 13일까지 선착순 30명

만지 않는 방송작가들을 위한 전도의 장(場)이 펼쳐진다. 전도사역본부 맞춤전도팀이 주최하는 방송작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전지적 작가 시점 THE STORY’(이하 전지적 작가 시점 THE STORY)가 ‘당신 인생의 기획의도를 알려드립니다!’를 주제로 11월 23일(수) 오후 6시 30분 63빌딩 4층 라벤더홀에서 열린다.

전지적 작가 시점 THE STORY에서는 만지 않는 작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미디어 문화 시대에 하나님이 그

들에게 주신 작가로서의 소명을 확인한다. 방송작가협회 정회원, 방송에 종사하고 있는 작가들이 그 대상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 THE STORY는 방송작가의, 방송작가에 의한, 방송작가를 위한 맞춤 디너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유명 뮤지션의 공연과 연주, 뮤직비디오 상영 등의 프로그램이 작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CRUX(남성 가스펠 보컬 그룹), 송솔나무(플루트 연주자, 드라마 ‘동이’, ‘이산’ OST 연주)가 게스트로 출연하고, ‘작가의 하루’, ‘꼬

리에 꼬리를 무는 작가신우회 이야기’, ‘꿈을 심는 사람들’, ‘작가뮤직비디오’ 등을 상영할 예정이다.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전한다.

방송작가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전지적 작가 시점 THE STORY’ 참가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11월 13일(주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30명(15커플)을 모집한다. 회비는 신청자 7만 원, 전도대상자는 무료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전지적작가시점

The story’ 채팅창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맛있는 말씀 해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계 1: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 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계 1:4).

이 말씀에 나온 ‘일곱 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지칭하는 것일까? 놀랍게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떻게 성령이 하나가 아닌 일곱으로 표시될 수 있었을까?

성령이 일곱으로 나타나는 최초의 경우를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사 11:2).

여호와와 영, 지혜의 영, 통찰의 영, 모략의 영, 용기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일곱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다. 성경에서 일곱이란 하나님의 완전하신 ‘1’의 숫자이다(창 2:2-3).

‘여호와와 영’이 가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혜의 영(호크마)’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망라해 요구되는 덕목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를 피하는 방면으로 이끄신다. 둘째, ‘통찰의 영(뵘나)’은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릇되고 악한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의 뜻하신 바대로 행하게 하신다. 셋째, ‘모략의 영(에차)’은 주로 정책을 결정할 때 필요한 지혜를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해주는 참모 역할이다. 넷째, ‘용기의 영(킵보르)’은 용맹한 장수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을 의미한다. 죄와 사명의 권세 아래 있는 사탄의 권세를 파하는 능력이다. 다섯째, ‘지식의 영(타아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선하시며 은혜로우신 뜻을 행하게 하신다. 예를 들면 의와 공평을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며, 불의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여섯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아르아)’은 자기를 세운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한다. 이 정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기쁘시게 하려고 애쓴다. 일곱째, ‘여호와와 영’인 ‘루아흐’는 태초에 여호와께서 불어넣으신 호흡을 의미할 때 쓰였으나,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메시아로 하여금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주시는 영으로 나타난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일곱 영’은 이사에서 언급된 ‘일곱 측면의 영’을 살펴볼 때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다방면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 안에서 완전한 능력과 섭리적 보호로 함께하신다.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했던 성령이 이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하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험할 여러 시련과 환난이 있다. 그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받고,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은 의도된 상징의 방식으로 한 분이신 성령을 일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의도된 상징적 형상이

나 숫자를 사용해서 성삼위의 세 번째 인격인 성령의 속성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했다(마 3:16).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실 때 그들은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때 ‘불의 혀’가 성령을 상징했다(행 2:3). 만약 그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120명이었다면 거기에는 120개 성령의 화염이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 다른 방식으로 상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을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서경남 목사
(인천온누리교회)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

언약의 계승자, 복의 전달자

11월 14일~11월 20
창세기 47:1~49:21



목상포인트 1: 야곱은 기근의 때에 도움을 받고자 애굽(이집트)에 온 신분임에도 복의 전달자가 되어 강대국 애굽 왕을 축복한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가족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소유지로 준다. 야곱의 인생길

은 녹록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때마다 선한 손길로 함께하셨다. 지나온 크고 작은 고통의 세월 속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목상하자.

▶요셉은 자신의 형 중에서 다섯 명을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운다. 그들은 요셉이 가르쳐 준 대로 자신들의 생업이 목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목축하기 적합한 고센 땅에 살게 해 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한다. 바로는 이를 허락하고, 그들 가족에게 왕의 가족을 돌보는 일을 맡긴다. 한편 야곱은 자신이 130년 나그네 길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에게 말하고 그를 축복한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복을 가로채고 고달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에

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목상포인트 2: 요셉은 총리로서 애굽 전역에 있는 백성을 잘 돌보고 관리한다.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한다. 남은 곡식을 잘 관리하고 적절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래서 7년 흉년 동안 가족을 포함해 많은 이의 생명을 보존한다. 요셉에게 미래를 대비하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리더십을 주신 하나님, 굶주린 이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자비의 하나님을 목상하자.

▶기근이 더욱 심해져 애굽과 가나안 땅은 모두 황폐해진다. 요셉은 백성에게 돈과 가족, 토지를 받고 곡식을 나누어 준다. 그리고 바로에게 귀속된 땅에 백성이 종자를 뿌려 추수한 것의 5분의 1은 바치고, 남은 5분의 4로 양식 삼게 한다. 요셉이 제정한 애굽 토지법은 오랫동안 애굽 소득세 기준으로 작용한다. 가족과 땅을 잃은 백성은 바로의 종이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양식과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된다.

목상포인트 3: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야곱은 장차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룰 아들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한다. 이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알려 주시는 하나님

을 목상하자.

▶임종을 앞둔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 묘지에 장사하라고 당부한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고 축복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서열이 바뀐다.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은 야곱은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한다. 르우벤은 장자로서 기력의 시작이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 시므온과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은 분노와 혈기대로 사람을 죽인 결과로 저주를 받아 흠어질 것이다. 형제의 찬송이 될 유다는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사자 새끼다. 그에게서 규(왕권)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고, 잇사갈은 압제 아래에서 섬길 것이다. 단은 백성을 심판하고, 갓은 군대를 추격할 것이다. 아셀은 기름진 것을 내고,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녹록하지 않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도움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위기에서 더욱 빛난다.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 약속을 전하는 것은 성도의 중요한 사명이다. 내가 생애 끝까지 기억할 하나님 약속, 다음세대에게 전하고픈 하나님 약속이 무엇인지 기록해 보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몸과 영혼의 회복을 위해!

저는 3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울증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힘들 때 가족과 친구들이 옆을 지켜주고 기도해주셔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병을 이겨내는 데는 소용없었습니다. 제 몸 곳곳에 자해 흔적이 있고, 지살 생각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마음 편히 잠을 잔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매일 악몽에 시달려서 잠이 드는 순간까지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정신도 정신이지만 몸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미친 듯이 음식을 먹었던 적도 있고, 끝없는 무력감에 짓눌려 일주일 가까이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자고, 식습관이 엉망이 되니까 한순간에 몸이 망가졌습니다. 위장장애와 빈혈 등이 생겨 거리에서 쓰러진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대로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제 몸과 영혼의 회복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에 잠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해하려는 제 마음이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게 임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평안히 잠들고, 맛있게 밥을 먹고, 사람들과 즐거이 대화를 나누는 일상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토기장이와 진흙

로마서 9:19~33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악함에 빠져있는 자들은 멸망하게 하십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적인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따라 이스라엘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족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대다수 사람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불의하심의 증거가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도 “아니다”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만 선택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왜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지 않는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잘못된 이유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일부만 선택하셨다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한데 왜 모두를 구원하지 않고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긍휼하심을 주느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택한 이들을 통해서 남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되도록 하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이 임하지 않는지, 그것이 왜 불의한 일이 아닌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하며 반기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20절).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욥기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전혀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물을테니 대답해 보아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느냐?”를 시작으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핵심은 “피조물인 네가 창조주인 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들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위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질문을 던지셨고 회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가 지으신 분에게 따지는 질문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예를 들어 이것을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2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귀하게 창조하셨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도록 창조되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도록 창조되었다는 운명론 혹은 결정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흙은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진흙으로 그릇을 빚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진흙으로 존재하는 것을 그릇으로 빚으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진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창조된 상태이지만 타락한 인간의 상태, 타락한 인성,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진흙에 불과한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이 원죄의 결과로 타락한 인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진흙 한 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흙 한 덩어리와 같은 타락한 인간을 그릇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귀하게 쓸 그릇과 막 쓸 그릇으로 만드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진흙 한 덩어리와 같은 존재를 그릇으로 빚든 진흙 덩어리로 버리든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흙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는 귀히 쓰는 그릇으로 빚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됐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진흙 한 덩어리를 그릇으로 바꾸시고, 진흙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어떤 이에게는 베풀지 않는 것이 불의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권한 때문입니다.

“멸망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둘째,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멸망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 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22절).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전체의 멸망을 집행 하셔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일부를 선택해 구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인류를 멸하시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정확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핑계할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연대는 어떻게 계산해도 오랜 시간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역사는 하나님 인내의 길이입니다. 인내의 길이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을 단순하게 오랜 기간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일부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버리시고 무자비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십니다. 당장 멸망해야 마땅하고, 이미 노아의 홍수 때 모두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셔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마땅한데 흠으심으로 또 참으셨고, 그 이후 수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완악함을 고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멸망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 존재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지옥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참된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완악한 이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회개하지 않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전도폭발을 창시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12면에 계속〉

자녀교육 Q&A

자녀에게 사과해야 한다!



Q: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분노를 쏟아놓고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 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분노를 쏟아놓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원인을 꼽고 싶다. 첫 번째는 당시 환경이 힘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힘든데 그 힘들음을 자녀에게 풀어 놓을 때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 부모에게 받은 경험을 자녀에게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부모가 화를 참지 못하는 상황은 자녀들에게 정말 미안한 일인데,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또다시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공부를 해봐도 무의식에 자리 잡은 트라우마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부모들은 감정을 잘 다루는 훈련을 해야 한다. 심리학에서는 감정과 사고가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를 보고 심리적 건강함을 판단하기도 한다. 감정과 사고를 구분하는 쉬운 방법은 시간을 갖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면 잠시 시간을 갖는 게 좋다. 자리를 피하거나 잠시 뒤에 대화하자며 감정을 다스릴 시간을 가져야 한다.

왜 화를 참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알면 감정을 다루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다. 많은 원인이 과거 부모에게 받은 상처에 있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실수하면 속옷만 입혀서 내쫓는 경우가 흔했다. 속옷만 입고 쫓겨난 자녀들은 부모가 되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자녀들도 나와 똑같은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마음을 졸인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힘들겠지만 자녀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성장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아이들에게 쏟아낸 죄책감에서도 상당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11월 8일, 9일 본문

'창 44장 30절~45장 8절'



1.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종이 될 위기에 처했어요. 요셉의 형 유다가 이 동생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부탁해 요셉은 형들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요셉의 이 동생은 누구일까요?

① 베냐민 ② 시므온 ③ 아셀 ④ 아브라함 ⑤ 이스마엘

2.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7년의 풍년과 0년의 흉년을 대비해요.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를 찾아 온 것도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집트에는 총 몇 년의 흉년이 들까요?

① 2년 ② 5년 ③ 7년 ④ 10년 ⑤ 14년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창조탐험대!

대홍수는 사실이었다

내가 창조탐험대원으로 선발됐을 때 날아갈 듯 기뻐다. 우리 가족 중에서 이 귀한 정보를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가장 먼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창조탐험을 출발했을 때 설렘. 대홍수가 사실이었는지 정말 궁금했기 때문이다.

대홍수는 크게 지층과 화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마이산, 채석강, 적벽강에서 그 흔적을 보았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간 게 대홍수의 증거라는 사실이 신기하고 놀라웠다.

특히 한순간에 지층과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과 성경 기록 등으로 대홍수가 사실이

라고 설명해주시는 강의를 인상 깊었다.

창조탐험을 또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가고 싶다.



신민섭 어린이
(양재 소년 1부)

드디어 창조가 믿어졌다!

온누리 어린이 창조탐험대에 참석하기 위해서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선생님이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다.

과학시간에 지층은 몇만 년 동안 천천히 만들어졌다고 배웠다. 그런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절벽에 생긴 지층을 관찰하면서 대홍수로 짧은 기간에 지층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대홍수는 성경에 쓰인 옛날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대홍수가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게 믿어졌다. 온누리 어린이 창조탐험대

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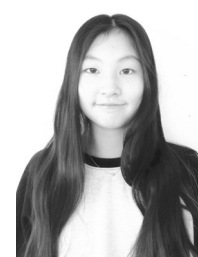
허태성 어린이
(서빙고 소년 1부)

창조탐험대에 오길 잘했다!

창조탐험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대홍수에 대한 증거들을 보고 공부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내용이 지층과 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시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조원들끼리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뉴스를 계획하

고 발표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1등은 하지 못했지만, 발표를 성공적으로 끝낸 것 같아 뿌듯하고 재미있었다. 창조탐험 두 번째 날에 새만금전시관에서 조사를 하고 버스에서 토론하는 활동도 했다. 새만금을 알게 되어서 '창조탐험대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또 채석

강이라는 바다에 가서 지층을 눈으로 직접 봤다. 이번에 오지 않은 다른 친구들도 창조탐험대에 와보기를 추천한다. 재미있었고, 다음에 또 가고 싶다.



유소은 어린이
(양재 소년 2부)



33. You know better than I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 관측 나를 아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 45:7-8

선교는 생활처럼, 친구처럼!

최영재, 김정화 부부, 김동열 집사가 말하는 선교

뭐든 자연스러운 게 좋다. 그래야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선교도 마찬가지다. 선교를 생활처럼, 친구처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여기 선교를 생활처럼, 친구처럼 하는 성도들이 진짜 있다. 10여 년째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재, 김정화(영등포구로공동체) 부부와 5년째 화성M센터에서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김동열 집사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을 만나 선교를 생활처럼, 친구처럼 하는 그 비결을 물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취재를 하다가 A 선교사(남아시아 I국)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 강산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남아시아 I국을 찾아온 성도들이 한 손으로 꼽을 정도라는 이야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남아시아 I국은 보안지역 중에서도 감시와 통제가 매우 심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A 선교사가 그 상황에서도 선교지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한 부부를 소개해 줬다.

“한국에서 온 라면을 받고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고 외로운 시절이었습니다. 남아시아 I국은 성도들이 아웃리치를 거의 오지 않는 지역인데, 지난 2011년 전문인선교학교를 수료한 세 분의 성도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이 땅을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긴 중보기도 모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눌 동역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속 이야기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생겼습니다.”

2011년 남아시아 I국을 위한 중보기도모임을 만들고 지금까지 이어온 주인공이 최영재, 김정화 부부다. 10년 넘게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라면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최영재, 김정화 부부에게 선교에 대한 그 뜨거운 간증이나 고백을 부탁했다.

“저희 부부는 선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와서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공동체 리더십이 순장사관 학교를 수료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참가한 순장사관학교 같은 조에 박관태 선교사(몽골)님이 계셨는데 그 덕분에 선교에 대해 어렵듯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영재, 김정화 부부는 선교가 부담스럽지 않다고 했다. 그들에게 다가온 선교는 거룩한 부담이나 사명보다는 즐거움에 가깝다고 했다. 바로 그것이 10년 넘게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모임을 이어오는 힘이라고 했다. 선교를



1. 남아시아국을 위한 중보기도모임과 A 선교사와 최영재·김정화 성도 부부(우측)
2. 광고 호수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김동열 집사.

생활처럼, 친구처럼 한다는 그들의 고백이 비로소 이해됐다.

“분명 선교는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일인데도 저에게는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선교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웃리치도 여행지에 간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남아시아 I국을 위한 중보기도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는 일상, 선교사는 부담 없는 친구

남아시아 I국을 위한 중보기도모임은 A 선교사가 언제든지 동역자들과 연락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서로 가벼운 마음으로 안부를 묻고, 기도가 필요하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공동체이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임이다. 선교와 선교사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긴 시간 관계를 이어올 수 있었다. A 선교사는 “선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와의 관계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사이 말이다. A 선교사와 최영재, 김정화 성도 부부는 떠돌이집안에도 정말 편안한 친구가 됐다.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모임이라고 해서 거창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선교사

님께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고, 가끔 한국에 오시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선교와 선교사님을 거룩한 부담으로 생각하고 느꼈다면 지금 같은 관계가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선교는 일상으로, 선교사님은 부담 없는 친구로 여기는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 많은 성도님이 선교를 생활처럼, 선교사님들을 친구처럼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생활입니다”
김동열 집사가 실천하는 선교**

“선교는 생활입니다”를 몸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 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근황을 취재하다 화성M센터에서 만난 봉사자 김동열 집사(수원온누리교회)다.

김동열 집사는 선교를 생활처럼 하고 있다. 선교할 수 있다면, 이주민을 섬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참여한다.

지난 10월, 화성M센터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다. 최명현 선교사(화성M센터)가 나들이 소식을 전하면서 한참 동안 어느 봉사자를 칭찬했다. <온누리신문>에 꼭 소개해달라고 당부도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김동열 집사는 주말마다 한국어 수업을 하

고, 매년 화성M센터에 나오는 이주민들과 소풍을 다니고 있다. 한국어 수업을 더 잘하고 싶어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주민들과의 소풍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싶어서 봉사공모전에도 참가하고 있다. 김동열 집사의 이주민 사랑과 뜨거운 선교 열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했다.

“저는 회사에서 네비게이션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인도로 출장을 갔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는 4개월 동안 네팔 형제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 뒤로도 몽골 아웃리치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일이 생겼습니다.”

김동열 집사가 와이미션 탐장으로 섬기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섬김을 시작했다. 수원온누리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화성M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두 팔 걷어 붙였다.

“에너지를 쓰면서 하는 일이 있고, 일을 해도 에너지가 충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에게는 한국어 봉사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일입니다. 이주민들에게 아는 한국말을 해보라고 하면 대뜸 욕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듣고 배운 한국말이 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주민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정성껏 한국어를 알려드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재미있고요. 이 귀한 사역을 오래 하려고 동역자도 만들었습니다. 수원온누리교회 박덕진 집사님과 함께 한국어 수업을 하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김동열 집사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그들의 필요가 눈에 보였다고 했다. 주말에도 일하는 이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한국 문화를 즐기고 경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 보였다. 그 아이디어가 이주민과의 소풍으로 발전했다.

“마침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계획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돕고 싶다는 계획을 세워서 제출했는데 그 계획이 선정되었고, 회사 신우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화성M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네팔, 캄보디아,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 함께 소풍을 일곱 차례나 다녀왔다. 수원온누리교회 이한철, 김대성 성도 부부와 김동열 집사가 다니는 회사 신우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김동열 집사는 누가 시켰으면 절대 이렇게 선교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고백했다.

“선교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처럼 못 했을 것입니다. 해외 출장과 아웃리치에서 한국어 수업을 한 경험을 따라 한발 두발 내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교가 생활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순종하고 섬기다 보면 동역자도 생기고 그 다음 할 일이 눈에 보입니다.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어서 선교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의 야엘리와 애비게일이 나올 수 있다!

자녀들을 해치는 문화 바로잡을 ‘부모의 권리’



이상현 집사
(강남E공동체,
송실대학교 국제법무학
과 교수)

성혁명의 주장은 다음 세 가지 거짓말로 요약된다.

“첫째, 성관계와 결혼과 출산은 상호 분리할 수 있다. 둘째, 남성과 여성은 서로 바꿀 수 있다. 셋째, 성적 행동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성적 자기 결

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이다.”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 성혁명 메시지를 주입 받은 서구의 많은 아이들이 이미 이 거짓말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교에서 이미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러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야엘리 사례로 본 성혁명의 희생자들

성혁명은 역사상 나타났던 혁명 사상 중에서 가장 파괴적이다. 성혁명 사상의 엄청난 부정적 영향은 단순히 희생자 수만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 11명의 프랑스 역사학자들이 쓴 〈공산주의 흑서〉에 따르면 20세기 전 세계에서 유독 피아를 건설하려던 공산 혁명의 시도가 결국 전체주의로 귀결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그 대가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9,400만 명이라는 무시무시한 수의 희생자가 야기되었다. 성혁명의 희생자는 이를 훨씬 능가한다. 성혁명 희생자의 일면에 불과한 낙태된 태아의 수만 봐도 명확하다. 최근 2년 연속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낙태였고, 작년 한 해에만 희생된 무고한 생명이 약 4,260만 명이다. 불과 최근 3년 동안 낙태로 희생된 숫자가 지난 100년 동안 공산국가에서 살해된 수를 넘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혁명의 희생자는 의도적으로 살해당한 무고한 생명인 태아 외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매일 여러 형태로 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최근 새롭게 미묘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영역은 ‘젠더 평등(성평등)’이다. 미국에서는 양성 개념을 부정하고, 성별은 유동적이며, 본인이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는 트랜스젠더 개념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성별 불쾌감이 지속한다면 부모에게 알리지 말고 병원에 가서 즉시 반대 성별의 호르몬이나 사춘기 호르몬 억제제를 처방받고, 더 나아가 건강한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으라고 부추긴다. 이 모든 처방은 양질의 증거나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수많은 아이를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다. 성전환 시술이 오히려 자살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야엘리 마르티네스의 사례가 바로 이러한 교육의 희생자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부모에게 있고,

진리가 아닌 내용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

지를 보여준다 (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 자유수호연합, 미국 보수 기독교 법률 옹호 단체) 유튜브 채널 참고).

야엘리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우울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 대신 야엘리를 ‘앤드류’라는 남자 이름으로 부르며 성전환 과정에 들어가게 했다. 가족들에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했다. 상황을 눈치챈 어머니(애비게일 마르티네스)가 학교의 조치에 항의하며 일방적인 성전환 처방 대신 딸의 정신 건강의 기저가 될 문제를 보달라고 상담사들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는 오히려 야엘리를 남성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엄마가 딸의 정신 건강 문제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엄마 애비게일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야엘리가 열여섯 살 때 학교 상담사는 그녀의 성전환 과정을 부모가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집보다 다른 곳에서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주장했다. 야엘리는 결국 그룹홈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남성 호르몬을 복용하기 시작한 딸을 애비게일은 일주일에 단 한 시간, 그것도 감독하에서만 볼 수 있었다. 게다가 신앙을 포함해서 성전환에 관한 부정적인 그 어떤 이야기를 하면 면회 자체를 금지할 거라는 경고까지 받았다. 야엘리의 정신 건강은 계속 나빠졌다.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은 그녀에게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했고, 시도한 모든 일이 효과가 없었다. 그룹홈에서 나와 약 3년 동안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한 야엘리는 결국 열아홉 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

다.

국가는 부모를 대체할 수 없고, 부모는 자녀가 받을 교육과 의학적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국가가 아니라 부모의 철학과 종교를 가르칠 권리는 보편적 인권이라고 UN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 권리는 아이들을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세뇌하던 전체주의 국가, 나치 독일의 세뇌 교육에 대한 반성적 형태로 선언된 것이다. 모든 부모는 정부가 자녀를 보호할 부모의 권리를 침해할 때 책임을 물을 권리, 자녀 교육과 치료에 대해 부모가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을 고를 권리, 자녀가 배우는 내용과 자녀의 건강에 해가 되는 것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부모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교육은 더는 교육이 아니라 정치적 세뇌가 된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이미 가르치고 있고,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제2의 야엘리와 애비게일이 나올 수 있다.

거창하지 않아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일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에서는 여러 단체가 연합해 부모의 권리를 교육하고, 공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과 내용 중에서 각 발달단계의 아이들이 배우기에 적합한 내용이 아닌 경우 부모에게 해당 내용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

안이 발의(오하이오)되거나 젠더 교육을 금지한 주(플로리다, 애리조나)도 있다. 우리나라도 아이들에게 해로운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칠 경우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을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

성경은 자녀(태의 열매)가 여호와와 기업이 자 상급이라고 하셨지, 국가에 주는 상급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보호하라고 허락하신 부모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상식과 아이들을 위해 일어설 의지만 있으면 된다. 미국도 과거 홈스쿨을 불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용감한 부모들과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부모의 교육권을 수호한 전례가 있다.

혼란스러운 시대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문제가 있는 교육을 받고 자랄 다음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낙심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지금 이곳에서 충성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이 큰 위로와 소망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고전 4:2)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음세대, 그 다음세대에서 문화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다음세대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문화를 물려받을 수 없다. 그래서 칼 트루먼(그로브시티대학 교수)은 남녀라는 생물학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인지하는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지금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역사와 철학 사조의 흐름을 따라 분석한 책 〈이상한 신세계〉, 〈신좌파의 성혁명과 성정치화〉를 썼다.

맷 월시(평론가)는 반더빌트 대학병원 의사들이 “성전환수술은 수익성이 정말 좋기 때문에 병원에서 도입해야 하고, 이를 종교적 신념으로 반대하는 직원들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에 병원을 떠나라”고 협박하는 영상을 폭로해서 해당 병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중단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부모에게 있고, 진리가 아닌 내용을 교과서에 담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작은 일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찰스 콜슨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그 진리대로 이 세상을 살 때 문화를 회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을 해치는 문화를 바로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꿈을 갖기를 소망한다.

라떼는 말이야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

“제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헛갈릴 때가 많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멘토님!”

다년간 청년공동체 멘토로 섬기면서 청년들을 많이 만났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자신이 정작 그리스도인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먼저 성경에서 이에 관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3-5).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듭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접기도나 물세례 등 교회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태

어나는 실제적 체험이기 때문이다. 거듭남으로 인한 영의 탄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서 화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마음 가다듬기나 심기일전 같은 의식적, 인지적 사고의 조작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거듭나지 못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모두 도망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그때 그들은 거듭나 영의 눈이 열렸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관계가 성경에서 혼인 관계에 비유되는 ‘언약관계’(covenant relationship)이다. 하나님은 자녀를 총체적으로 책임지시고, 자녀는 하나님께 삶을 총체적으로 맡기는 관계이다.

청년들에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는 질문을 많이 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나 거듭남에 관해 분명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을 다수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묵묵부답이거나 “잘 모르겠다”, “아마도 만났을 것 같다” 등으로 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라고 대답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났는지는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거듭남을 경험하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변하는 놀라운 체험을 한다. 하나님 중심이자 말씀 중심의 시각으로 전환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는 말씀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야곱이나 모세,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만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생일대의 사건이다. 거듭나면 하나님에 속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구하고, 세상에 속한 한시적인 것에 모든 것을 걸지 않게 된다. 변화된 속사람으로 인해서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무엇보다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때부터 비로소

성장이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자진해서 섬길 수 있게 된다.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힘겹게 사역을 감당하다 탈진하거나 실망해서 공동체를 떠나는 지체, 공동체 활동을 피하고 무소속으로 잠행하는 청년들이 많다. 만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면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부터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의 시기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수립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참으로 송고하고 필수적이다. 청년들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차두희 멘토
(J4U청년부 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모상담

자녀의 신앙 방향, 부모의 잘못만은 아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문제를 겪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매우 고통스럽다. 믿는 자의 가정은 출발선에서부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는 다짐과 믿음의 가정에 허락해주시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겠다는 결심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은 창조 역사에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 부부를 통해서 귀하고 소중한 자녀를 허락하신다. 부부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날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한다. 아이가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해 준다. 아이는 부모가 이끌어 주는 대로 신앙의 양분을 마음껏 받아먹는다.

아이가 순탄하게 신앙 안에서 자라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부모에게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신앙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방향을 겪는다. 초등학교 혹은 중학생 시기를 보내는 어느 날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신앙적 반항을 시작하는 자녀도 있다. 아무리 달래도 듣지 않는다. 아이는 자신만의 논리를 근거로 부모 신앙에 대한 반감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이때 믿음의 부모가 받는 당혹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심각하게 마음이 위축되는 경험도 한다.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여겨져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신앙의 방향을 겪는 사춘기 아이들의 신앙 성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부류는 잠깐 방향

하다가 다시 신앙이 견고해지기도 하고, 다른 부류는 오히려 신앙에서 더욱 멀어지면서 청소년기에 접어들기도 한다. 이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때는 아이들이 신앙의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부모 중에는 아이들의 행동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달래가면서 끌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부모는 강압적으로 또는 자녀들을 위협하면서 신앙의 자리에 끌어 놓기도 한다. 그런데 강압적인 방법이 자녀의 마음을 얻는 데 효과적이라는 부모 간 증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자녀에게 잠시 일어난 신앙적 방향을 허용해주면서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다. 쉽게 끝나지도 않는 길고 긴 고난의 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부모는 방향하는 자녀를 끝까지 지혜롭게 안내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예수님의 어린 제자’로 키워가는 두 번째 해산의 수고를 담당해야 한다.

자녀가 신앙의 방향을 심하게 할 때면 부모의 마음엔 자녀의 신앙 교육이 실패한 것 같아서 심한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이때는 어떤 위로나 격려도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혹자는 “아이들 신앙의 방향은 일시적”이라며 상황을 축소하기도 하고, 혹자는 “문제 있는 자녀는 없고 문제 있는 부모만 있다”는 식으로 부모의 신앙 교육 태도를 힐난하기도 한다. 왜곡된 인식과 편향된 시각에서 시작된 외부적인 수근거림인 경우도 많다. 믿음을 가진 부모는 신앙 교육을 할 때 인격적이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자녀의 신앙

의 행동에 대해 마음을 나누며 필요하면 수정을 요청한다. 요즘 신앙 교육은 과거 일부에서 행해졌던 것 같은 강압적이거나 위압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배제하는 추세다. 그런데 부모가 마음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종종 신앙적으로 심각하게 방향하는 아이들이 생긴다. 심하면 신앙에서 꽤 멀리 벗어나 살아가기도 한다. 매주 주일 교회에 갈 시간만 되면 부모는 무거운 바위가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공동체에 불신앙 자녀를 위한 기도제목을 내놓기도 어렵다.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갑자기 교회 출석과 신앙을 거부하는 자녀라면 여러 사람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구하기가 더욱 어렵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어려울 때가 있는데,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자녀의 마음을 다시 붙잡고 이끌어오는 일은 극한 인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부모에게 보이지 않는 돌을 던지며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마음이 더 괴롭다. “자녀의 신앙적 방향은 부모가 잘못 키웠기 때문이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너무 방목했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부모를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러한 분위기는 부모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한다. 자녀의 신앙적인 방향도 힘든데 누구에게도 격려나 위로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 더욱 힘겨울 것이다. 부모들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화개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 줄 것을 고통스럽게 기

도하기도 한다.

신앙의 방향이 심해지면서 믿음이 몹시 흔들리는 자녀의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보는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서적 반응과 위로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은 아신다”라는 위로와 격려가 아닐까? 누구보다 오랫동안 마음 아파하고 노력한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적 방향이 모두 당신의 잘못된 신앙 교육 때문이라고 극단적으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자책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모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녀의 불신앙으로 인해 경험하는 수치와 죄책감, 자녀에 대한 분노, 자기에 대한 자책을 내려놓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대를 갖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자녀를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면서 수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녀의 신앙적 방향으로 인한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한다(엡 6:4).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섬교회 나들이'

그녀의 발과 무릎으로 쓴 <고군산군도행전>

추명순 전도사와 마지막 섬 '말도교회'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나우리트 대표)

차를 타고 길게 이어진 새만금방조제길과 고군산군도의 여러 연도교들을 통과해서 도착한 곳이 장자도 선착장이다. 이곳에서 하루 두 편 운항하는 배를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는 섬이 있다. 예전에는 군산항에서 배를 타면 3~4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였는데, 오늘날은 고군산군도의 몇 개 섬들이 매립되어 육지가 되고, 연륙교와 연도교로 연결되어 장자도에서 30~40분만 배를 타면 만날 수 있는 섬이 되었다. 더 옛날에는 군산항에서 풍선을 타고 야미도, 신시도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기약 없는 배를 기다리며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방축도를 거쳐서 도착하는 데 빠르면 한 달정도 걸리는 섬이었다. 먼 걸음을 옮겨야 겨우 만날 수 있던 섬이 바로 '말도'였다.

말도는 여전히 군산항에서 출발하는 고군산군도행 여객선의 종착지다. 이 끝 섬, 땅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말도에는 어떻게 복음의 빛이 닿았을까? 1959년 군산 중동교회 김용은 목사의 권유로 한 중년 여전도사가 이곳에 도착한 일부터 말해야겠다.

추명순 전도사는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섬마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

이고, 그들의 일상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삶을 끌어안았다. 추명순 전도사는 일상의 한 부분을 떼어 말도의 한적한 굴속에서 몸을 기대고 홀로 눈물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했다. 한두 사람이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왔고, 힘을 모아 작은 예배장소를 마련하고, 마침내 교회라는 이름의 간판을 단 예배당이 세워졌다. 추명순 전도사가 그 중심에서 사역했다. 훗날 누군가 추명순 전도사를 '말도의 마더테레사'라 불렀다. 추명순 전도사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그 누가 이 끝 섬, 말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향내를 피울 수 있었을까? 잠깐의 수고가 아니다. 정년의 나이를 훌쩍 넘어서 이 사역의 바통을 물려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24년을 한결같이 말도 주민들과 함께했다.

추명순 전도사의 사역은 '말도교회'에서 머물지 않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군산에서 말도에 가려면 고군산군도의 여러 섬을 거쳐야 했다. 정기선이 운항하는 게 아니기에 군산과 말도를 오가는 길과 기약없이 배를 기다리는 시간에 추명순 전도사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섬마을을 위한 기도를 했다. 고군산군도의 순회사역자로 살았다. 여기저기 힘겹게 흠어진 신앙을 이어가는 성도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근처 산봉우리에 올라 기도하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도했다.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아이들을 모아 여름성경학교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온전히 그녀의 손과 발로 고군산군도의 사도행전을 써 내려갔을 뿐이다. 누군가 온 힘을 다해 추명순 전도사의 활동을 활자화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고군산군도의 여러 섬사람의 기억 속에는 하나같이 추명순 전도사가 살아 있다. 추명순 전도사와 함께했던 이야기들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군산에서 끝섬 말도까지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 그리고 말도의 교회 설립자들이 있고 다양한 교회의 시작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그 교회 대부분 1958~1959년 여간을 설립연도로 하고 있다. 모두 성결교회라는 사실을 설명하려면 추명순 전도사라는 공통분모를 쉽게 외면할 수 없다. 남아있는 자세한 기록이 없을 뿐이지 그녀의 발과 무릎으로 쓴 <고군산군도행전>의 저자는 추명순 전도사라고 말하고 싶다.

추명순 전도사가 사역했던 말도교회의 오늘에는 어떻게? 말도교회 9대 담임목사 김상남 목사와 성도들은 추명순 전도사의 복음 정신과 사역을 이어가려 고군분투 중이다. 12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에서 매주 찬송소리와 하나님 말씀의 울림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20명 남짓한 주민들과 말도를 오가는 선원들을 위한 섬김도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방치된 경로당을 기도로 품고 있다가 말도교회의 헌금과 여러 교회와 기관의

후원으로 매입하고, 사람이 오가기 쉽지 않은 말도에서 목사님이 일당백 일꾼으로 솜씨를 발휘해 '추명순전도사기념관' 조성을 위해 쉴 틈 없는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 또 동기목사님들의 도움으로 선교선 '추명순호'를 구입해 주변섬들을 방문하고 순례객들이 찾기 쉽도록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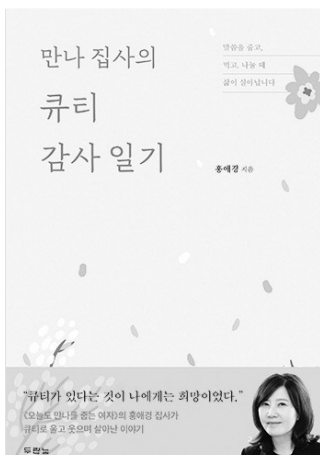
당장은 작은 섬, 끝 섬이지만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과 복음의 향기는 여느 교회에 뒤지지 않는다. 일부러라도 찾아가 그 열정과 향기에 잠깐이라도 머물기를 바랄 정도다. <고군산군도행전>은 추명순 전도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말도교회가 이어받아 여전히 쓰고 있다.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일상과 시간을 담아 보는 게 어떨까? 더 추위지기 전에 말도행 티켓을 예약하면 좋겠다.



추명순 전도사(좌측).

두란노 신간

큐티가 희망이다!

<만나 집사의 큐티 감사 일기>
홍애경 저 | 두란노 | 14,000원

이 책의 저자는 미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MBC 드라마 작가도 됐다. 예쁜 두 딸과 성실한 남편, 좋은 집까지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삶이었다. 결혼을 앞둔 큰딸 제니퍼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 말이다. 갑자기 하나님 곁으로 떠난 딸 생각에 방향을 시작했다.

마른 뼈 같은 저자의 삶에 단비같이 찾아온 보석이 바로 큐티다. 지금 그녀는 눈을 뜨면 만사를 쥌듯 큐티를 한다. 큐티하고 나누며 살고 있다. <만나 집사의 큐티 감사 일기>는 저자가 큐티하면서 살아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요즘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꿈꾼다. 매일 아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꿈꾸는 삶은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편’을 택하는 삶이다. 그 삶에는 달콤한 기쁨이 있다.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다. 물론 만사를 먹으며 큐티하는 삶이 언제나 달콤하고 기쁘지만은

않다.”

큐티가 막연한 숙제처럼 느껴진다면 이 책을 읽어 보기를 권한다.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CGNTV 추천 콘텐츠

CGNTV 해외 지사의 선교 열전



특집 다큐멘터리 '더 멀리 더 가까이'

다. 길거리 전도도 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에서는 CGNTV를 통해서 사역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북서 아프리카 불어권을 향한 미디어 선교 비전을 품고 출발하는 CGNTV 프랑스 지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하고 있다. CGNTV 해외 지사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단순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어루만지는 선교임을 고백하고 있다.

특집 다큐멘터리 '더 멀리 더 가까이'는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다가가는 CGNTV의 영성을 만나보는 귀한 콘텐츠다. CGNTV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이 다큐멘터리를 추천한다. CGNTV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CGNTV는 해외 지사도 운영하고 있다. 미주,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 총 6개 국에 해외 지사가 있다. CGNTV 해외 지사에서도 날마다 선교 열전을 써 내려가고 있다. 그 은혜의 현장을 특집 다큐멘터리 '더 멀리 더 가까이'에 담았다.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 신자인 태국에서 CGNTV 콘텐츠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영혼들이 생겨나고 있다.

11월 13일까지 엔젤트리 사연 접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목회지원실에서 신청



한 성도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엔젤트리 사연을 읽고 있다.

“특별성재생불량성빈혈로 치료 중인 하영이를 위해 사연을 씁니다. 하영이가 크리스마스에는 가족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인 제가 선물할 수 있지만, 하영이가 온누리 교회의 전사들에게 선물을 받고 큰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

음에서 엔젤트리 사연을 접수합니다. 하영이에게 예쁜 털모자와 털목도리를 선물해주세요.”
2022 엔젤트리 사연 접수를 11월 13일(주일)까지 받는다. 엔젤트리 사연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와 목회행정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연 대상자의 사연, 주소, 연락처, 신청

자의 소속, 연락처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선물은 5만 원 상당을 고르면 된다. 2022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19일(토)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로비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434, 343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선교재단 ‘사랑의 김치’ 나눔 축제

11월 14일 선교재단 직원 및 봉사자 30여 명 참가

온누리선교재단이 ‘사랑의 김치’ 나눔 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온누리선교재단 사랑의 김치 나눔 축제가 오는 11월 14일(월) 서빙고온누리교회 지하 1층 식당에서 열린다.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및 봉사자 30여 명이 배추 300포기를 김장해서 이웃들에게 나눔 예정이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온누리선교재단 사랑의 김치 나눔 축제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행사다. 올해 온누리선교재단이 담은 사랑의 김치는 개척교회 목회자, 독거노인, 교회 인근 아파트 경비원, 장애인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예수님 탄생, 새롭게 읽기’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세미나 참가자 모집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성탄절 특별강좌 ‘예수님 탄생, 새롭게 읽기’ 온라인 세미나를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좌는 여러 성경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탄생의 의의를 배우는 과정이다. ‘죽보에 나타난 탄생 복음’, ‘마리아의 찬가에 나타난 탄생 복음’, ‘성육신에 나타난 탄생 복음’ 등

을 주제로 권해생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가 강의한다.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삶에 적용하기 원하는 성도와 목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3만 원이다. 11월 21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수강하면 된다. 문의: 02-2078-3266

제이흠 ‘입양위탁홍보세미나’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제이흠(입양위탁가정 커뮤니티)에서 ‘입양위탁홍보세미나’를 개최한다. 11월 20일(주일) 오후 5시 강동온누리교회(강동구 천호3동 453-19 나비쇼핑몰) 11층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제이흠 입양위탁홍보세미나에서는

입양 및 위탁에 대한 성경적 의미, 행정적 절차, 방법, 관련기관 등을 알려준다. 입양 및 위탁을 생각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10-7581-4995

어린이신문 차세대 작품 모집

온누리신문에서 격주로 보도 중인 어린이신문에 실을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작품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작품 제목, 작품 설명,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차세대들이 보낸 작품은 온누리신문에 보도하고, 주점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준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평소 궁금했던 말씀에 대한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보도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CGNTV ‘풍당교회학교’ 프로젝트

11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지원 교회 모집

CGNTV가 ‘풍당교회학교’ 프로젝트에 지원할 교회를 모집하고 있다. ‘풍당교회학교’는 다음세대 신앙교육을 돕는 프로젝트다. 교회학교 운영이 어려운 교회들을 선정해서 ‘삼성 스마트TV’를 지원하고, 기독교 OTT ‘풍당’을 활용한 교회학교 ‘예배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CGNTV는 1차로 53개 교회를 지원했다. 현재 2차 지원 교회 모집이 한창이다. 11월 15일(화)까지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지원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정통 기독교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등록 교인 100명 이하, 연 결산액 1억 원 이하의 교회다. 담임교역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무엇보다 ‘풍당교회학교 커리큘럼’을 교회학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문의: 02-3275-9513

/ 김영선 기자

NGO 더멋진세상,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2천 4백만 원 모금, 모리타니 어린이 450명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9월과 10월 동안 진행한 ‘모리타니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을 통해 2천 4백여 만 원을 모금했다.

이 후원금은 228%의 높은 아동 영양실조율과 더불어 각종 감염 및 질병에 노출되어있는 아프리카 모리타니 다르비다마를 더멋진세상 어린이 영양센터 운영과 중등도 영양불균형인 어린이(약 200명(6개월에서 만5세)) 등 450명을 지원하

는데 사용된다. 식품키트, 위생용품, 가정방문 등도 지원한다.

이종구 선교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아프리카 모리타니 어린이 모두가 중증도 영양 불균형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2-2271-2246

/ 김영선 기자

오병이어 스쿨 세례식

어르신 19명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아

어르신들을 섬기고, 예수를 소개하는 ‘오병이어 스쿨’에서 아주 감동적인 세례식을 열었다. 지난 11월 7일(월) 오후 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오병이어 스쿨 세례식이 있었다. 어르신 19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날 강순희 어르신은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많이 났다”면서 “그동안

안 섬겨주신 오병이어 스쿨 봉사자들과 일대일제자양육자님께 깊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병이어 스쿨은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이다. 이번 세례식으로 2022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26일부터 다시 예배를 시작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434

화성M센터 한국어 교사 모집

화성M센터(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03-1호 3층)에서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네팔,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민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 된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0-4605-2510

테마와 영성이 있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이스라엘, 튀르키예

테마와 영성이 있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12월 28일(수)부터 2023년 1월 3일(화)까지 이스라엘, 2023년 1월 17일(화)부터 24일(화)까지 튀르키예를 여행한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구약성경과 4복음서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중동 전쟁사’, ‘유대인의 자녀교육’ 등을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듣는다. 튀르키예 편에서는 ‘소아시아 7대 교회’, ‘바울의 전도여행’, ‘신구약 중간사’ 등을 중심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비잔틴 제국사’ 등을 주제로 인문학을 공부한다. 참가신청은 전화(010-4902-1022)로 하면 된다. 팀당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

문의: 010-4902-1022

■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참가자 간증



/ 야마다 나오코 성도(요코하마온누리교회)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9년 전, 내가 크리스천이 아닐 적에 미야자키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인터넷에서 ‘미야자키신궁대제전’ 퍼레이드에서 신(神)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타마 요리히메’ (진무천황을 낳은 어머니 신) 역을 맡아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그때 나는 신은 신사(神社)에 있다고 생각했었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때 일이 생각났다. 그리고 미야자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과 진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고 소망했다. 작은 힘이나마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봉사자로 참가했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당일 낮에 전단지들을 나눠주러 거리에 나갔다. 이른 시간부터 술에 취해 앉아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말씀이 써진 전단지를 나눠주면서도 그 사람이 계속 눈에 밟혔다. 나는 근처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서 그 사람에게 건넸다. 그분이 “인생은 괴롭다”고 말했다. 나는 “당신을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종교는 안 믿는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그래도 계속 그분께 말을 붙였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진절히 대해줘서 정말로 고맙다. 왜 당신은 나에게 친절한 것이냐?”고 물었다.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외로운 영혼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택시에 타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달려가서 그들을 도왔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전단지를 들고 있어서 그런지 사랑 있는 행동을 더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순간 말씀이 생각났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후 3:3).

내가 전단지를 갖고 있건 없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전도지다. 행사장에서 봉사하는데 연배가 있는 한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고맙습니다. 많이 전도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하시겠지요!”

그 여성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에서 생겨난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기를, 미야자키에 더 큰 축복과 승리가 있기를 기대한다.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 두란노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 이선화 성도(고양은평공동체)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 되기

“나는 어머니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대뇌이던 그 순간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 엄마를 떠나보낸 나에게 어머니는 가슴 시린 단어도 하다.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애를 쓰며 두근두근해왔는데 어머니라는 자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다.

두란노어머니학교에 참석하는 동안 엄마들의 고백을 들으며 ‘엄마는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다.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라는 주제의 발표를 들을 때는 하나같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다. 귀한 강의를 들으며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나는 어떠한지 돌아보게 되었다. 나도 아이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쳤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자식을 위해 대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이해되고 공감되었던 때가 있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하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부단히 애를 써보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변화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내 행동과 말을 변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웠다. 부메랑처럼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나를 힘들게 했다.

하나님은 두란노어머니학교를 통해서 엄마로서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대했

던 시간을 돌아보게 하셨다. 나의 공허함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미리 앞서가고 닦달했던 내 모습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엄마와 아내로서 잘해보겠다고 열심을 내고 완벽하려고 너무 애썼고,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교만으로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정의 행복하다는데, 나의 역기능적인 원가족으로부터 사랑과 격려, 관심을 받지 못했던 나의 어린 시절 결핍이 병든 엄마로 살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사랑을 줄 수 있도록 회복할 것이다.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삶을 나누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안아주는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을 보내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도, 다른 사람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귀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 순간 주님이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도 발견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 든든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더 좋은 엄마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정승원 성도(양재B공동체)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은혜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은 청년부 시절에도 했었는데 끝까지 마치지 못했었다. 1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대일제자양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일대일제자양육은 나에게 여러모로 유익했다. 체계화된 신앙 훈련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였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대한 우선순위와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도 배웠다.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할 즈음 세 가지 어려운 일이 동시에 찾아왔다. 아들이 갑자기 소아 류마티스 판정을 받고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한 달 동안 휠체어를 탔다. 또 창업 과정을 함께하며 2년 동안 키워오던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다. 살고 있던 집 재계약이 안 돼서 갑자기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닥치면서 비로소 인생에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일대일제자양육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 넘치는 삶을 배웠다. 특별한

세 가지 은혜도 있었다. 새벽기도를 가게 되었고, 큐티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잠들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그날의 감사제목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성경통독도 했다. 다윗 왕의 역사가 스타워즈처럼 재미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과정이 공감되고, 찢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다. 모태신앙이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던 나에게 성경통독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세 가지 문제들도 해결되거나 사라졌다. 아들이 다시 걷게 되었다. 이제는 약을 줄이고 있고, 뛰기도 한다. 계획에 없던 회사 두 개를 맡게 되었고, 새로운 일도 시작했다.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어 전세 재계약을 하고 계속 살 수 있게 되었다. 문제가 사라진 것도 기쁘지만, 그것보다 새벽기도와 가족예배, 성경 읽기를 시작한 것이 훨씬 기쁘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인생을 사모하면서 더욱 사랑하며 살고 싶다. 앞으로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양육을 양육하며 배우는 삶을 살고 싶다.

■ 창조신앙 아카데미 수료 간증



/ 홍소피아 자매(S브릿지공동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귀한 존재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찾고자 창조신앙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창조과학의 과학적 근거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기쁨으로 인해 자존감이 높아졌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것이 과학적 사실로 확실하게 설명될 수 있음은 모르고 있었다. 창조신앙 아카데미에서 바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이고, 큰 은혜였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과학적 근거로 비교하면서 무엇을 믿을 것인지, 내 믿음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믿음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사실적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는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였고,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셨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나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참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선교의 비전도 다시 한번 뜨거워졌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전하고 싶고, 어쩌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목적으로 지어졌음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구원의 확신이 더욱 견고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소명을 따르는 일이 자랑스럽기에 선교를 향한 간절함이 더욱 커졌다.

창조신앙 아카데미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견고하게 재정립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장로칼럼

놓치고 있는 선교지 ‘이주민 차세대’



황성룡 장로
(양재2000선교,
강남A공동체)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밋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4:29b).

지난달부터 주일 오후 서울 외곽에 있는 베트남인 교회에 가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 엄마가 주일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색종이로 바람개비를 만들어 놓고, 막대풍선으로 강아지를 만들어 줬다. 달팽이 영상도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다. 그 덕분에 아이들과 아주 친해졌다. 엄마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온전히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매우 고마워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과 해맑은 미소를 보면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증가 속도가 우리나라 가정의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9년 252만 명을 기록한 이후 코로나19로 주춤하기는 했지만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 9월 말 217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난민의 수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자녀들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다음세대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교의 대상이다. 양재온누리교회 2000선교 차세대 선교팀은 ‘이주민과 난민과 다문화가정의 19세 이하 차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돌봐서 그들을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인, 신앙인, 동족을 향한 복음 전파자로 성장시키

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한다’는 사역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한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등의 교과목은 물론이고, 각종 예체능 과목, 미술치료, 건강, 의료, 심리상담, 놀이, 복음전파 등을 해줄 ‘이주민 차세대 교사’들을 찾고 있다.

지방 소도시 학급에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 다문화 가정 부모들은 매우 바쁘고,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보살필 여력이 부족하다. 다문화가정 차세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수업 내용과 각종 숙제를 스스로 소화하는 일이 버거운 게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면서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도록 지원하고, 초중고 과정을 잘 마쳐서 재능과 상황에 맞게 진로를 선택하도록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무관심과 외로움에 노출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타종교나 이단에 휩쓸리지 않도록 교회가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

온누리교회가 지향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선교적 교회이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공동체이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양육공동체이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성령의 능력에 기대서 이주민 차세대 선교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러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7).

하나님이 이주민 차세대 교사와 중보기도팀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한다. 우리나라에 나그네로 와 있는 이주민, 난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우고,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 내려가기를 기도한다.

문의: 카카오톡ID acts_29

권사칼럼

열방을 향한 ‘부부학교’



양재경 권사
(고양은평공동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함께 지원한 알콩달콩 부부학교를 섬기게 되었다. ‘괜찮은 걸까?’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첫 만남을 가졌다. 그곳에는 러시아 말을 사용하는 5개국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살아온 환경

도, 인종도 다른 15가정이 알콩달콩 부부학교에서 만났다.

이번 알콩달콩 부부학교에 참가한 지원자들은 한국에 일자리를 찾아온 이주민 가정이 대부분이었다. 전쟁의 포화를 피해온 우크라이나 난민 2가정도 있었다. 기도로 알콩달콩 부부학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걱정이 가득했다. 말도 통하지 않아서 전적으로 통역에 의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첫 만남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온 한 아내의 소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한국으로 부르시고, 알콩달콩 부부학교에서 만나게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 아내는 “자녀들의 아빠가 한 명이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고백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여러 번 재혼해서 아버지가 여러 명이라고 했다. 어린 시절 그제 너무 힘들었다면서 눈물 흘렸다. 반드시 가정의 소중함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은 러시아인, 아내는 타지키스탄인 부부도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부모가 이혼해서 조부모 밑에서 성장했다. 부모에 대한 기억조차 없었던 부부는 ‘우리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다. 하나님이 이 부부

를 지켜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했다.

15가정 지원자들이 원가족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알콩달콩 부부학교에 나왔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한국으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을 용납하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 말은 잘 알아듣는데, 배우자와는 대화가 안 된다는 부부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며 상대방의 언어에 집중했다. 배우자의 말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하는 말이었음을 확인하고 감동의 눈물을 쏟았다. 알콩달콩 부부학교의 규칙에 따라 멋쩍어하면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아내”, “존경하는 남편”으로 부르며 미소짓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으로 회복되는 가정들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왜 알콩달콩 부부학교를 열게 하셨을까? 중앙아시아 5개국으로 아웃리치를 가서 알콩달콩 부부학교를 열었다면, 더 많은 부부들이 모일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나의 걱정이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했다. 한국에 와 있는 다양한 국적의 부부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가정을 회복하는 축제를 열게 하셨다. 말 그대로 열방을 향한 아웃리치였다. 5개국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축제였다.

한국에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주민이 10만 명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이 3천 명 있다. 그들이 한국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꿈을 꾸다. 이 땅에 온 모두가 알콩달콩 부부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이정환 목사
(도곡공동체,
러브소나타 담당)

지난 11월 2일과 3일, 32번째 러브소나타가 미야자키에서 울려 퍼졌다. 이번 러브소나타는 3년 만에 일본 현지에서 대면으로 열린 집회라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

미야자키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다. 연중 따뜻한 날씨로 일본 프로야구팀들의 전지훈련지로 유명하고, 많은 골프인이 찾는 스포츠 천국이다. 이렇게 좋은 자연조건을 가진 곳이지만, 미야자키는 일본의 47개 현 중에서 46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가 낙후된 곳이다. 그래서인지 이혼율과 자살율이 전국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교계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미야자키는

7,735km²(일본에서 14번째 넓은 현), 107만 명의 인구가 있는 곳인데 교회는 고작 63개뿐이다. 크리스천 인구라고 해봐야 고작 천 명 남짓이다. 영적으로 낙후된 곳에서 러브소나타가 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이 아닐 수 없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를 준비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코로나19 팬데믹 발발로 미야자키 실행위원회가 해산되는 위기를 겪어야 했다. 실행위원회가 다시 결성되기까지 그 수많은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31개 교회가 협력교회로 동참해준 것이 정말 감사하다. 협력교회 대부분이 가정교회나 성도 20명가량 작은 교회들이다. 교회 규모나 성도 수는 적지만, 미야자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전도 활동에 힘써주셨다. 숫자나 역량의 한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부족한데도 미야자키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은 한 명에게라도 더 러브소나타를 알리고, 초대하기 위해 애썼다. 행사가 끝나고

현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미야자키 교회가 연합하는 기적과 미야자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러브소나타에 미야자키 교계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의 목회자와 교회들도 함께 해주셨다. 일본 전국 실행위원 목사님들이 규슈 남단 끝에 있는 미야자키까지 찾아오셨다. 일본 비전교회에서도 섬겨주셨다. 일본의 7개 비전교회에서 70여 명의 성도님이 통역과 안내, 중보기도로 섬기기 위해 미야자키에 오셨다.

한국 봉사자들도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 항암치료를 마치고 러브소나타에 참여하신 성도, 큰 수술을 앞둔 성도, 믿음이 약한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시키기 위해 신청한 성도, 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참여한 성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한 성도 등 많은 성도님이 러브소나타 미야자키를 위해 수고해주셨

다. 그분들의 염원과 수고 덕분에 851명이 러브소나타에 참석했고, 209명이 결신하는 은혜가 있었다.

러브소나타 집회의 모든 순서가 끝나고, 세리모니도 끝났는데 많은 사람이 행사장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 행사는 끝났지만 러브소나타가 주는 깊은 여운에 마음이 감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결신하지 않았어도 한국 사람들의 사랑에 감명받았다고 말하는 일본인들도 많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그날 결신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많은 사람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리라 믿는다. 우리가 전한 사랑, 미야자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그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역에 쓰임 받는다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섬겨주신 모든 분과 러브소나타 미야자키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토기장이와 진흙

다섯 사람이 은행 강도를 모의했다고 합니다. 그 다섯 사람이 자기 친구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친구들에게 “제발 그런 악한 일은 하지 말라”고 간청하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친구들이 이 친구를 밀쳐 내고 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친구를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서 뒹굴며 싸워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결국 네 친구만 계획대로 은행을 털었습니다. 결국 네 친구는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강제로 가지 못하게 막아서 범행에 가담하지 못한 친구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친구는 죄를 지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친구는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가 막아주었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지 않으시는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을 끝까지 거절하는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도 완악함을 버리지 않기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셋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게 하십니다.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23절).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악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죄를 벌하심으로 그분의 거룩한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애굽 군대를 바다에서 심판하신 이후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처럼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출 15:11).

하나님은 거룩한 심판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

다.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시는 것은 긍휼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영광을 얻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진노의 심판이 쏟아진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증거들 중에 가장 놀라운 영광의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긍휼이 임하지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거절하는 이들은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며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알려십니다. 하나님은 진흙 덩어리를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신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빚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져 하나님 역사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도 부르셨습니다”(24절).

우리는 진노의 그릇인가, 긍휼의 그릇인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믿기로 혹은 믿지 않기로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오래참으심 가운데 십자가로 나타내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육체적인 혈통으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계획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

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25~29절).

앞에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내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30~32절).

많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준 것인데 도리어 율법을 가지고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유대인들을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긍휼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완악함, 자존심, 자기 의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죄악의 걸림돌에 걸려 믿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멸망 받는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긍휼하심에 의해 주어집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났고, 자기만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창조하시거나 멸망 받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정에 대한 오해를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끝까지 완악함에 빠져있는 자들은 멸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과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예정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더욱 간절히 나아가게 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 서빙고	서명원 박선규 오은정 고은주	정은하 김미정	김지연 정도운 김지영 백소영 나 철 오광록 이길형 김태훈	■ 여의도 곽일엽 김동관	신승열 이단열 조우형 임현택 최순록 이재순	조혜미 정수정 최효은 김득희	남유정 최하현 서재경 류예경 심영우 전찬호 안도원 전태환 양기찬 윤성호 왕지애 이인혜 윤서영 소미현 윤혜인 남미선 이선경 정보석 이은선 김연화 이지민 정미애 이지선 오소연 임일웅 강준구 정동우 박성환 주하늘 최호림 최윤경 황정미 최은규 사인석 최은영 양민영 최진혁 유재관 최창수 이승철
■ 가정사역	이성은 한유나	■ 김포	오송이 김상모 정유리 문경희 한경호 이준영	■ 영등포구로	이해숙 이명희	● 대청	
■ 강서	남주희 김규옥 이주연 이지영	■ 노원	김해동 김광하 민경숙 문점심 이상인 이자형 지영학 최기홍	■ 용산	오소연 최경희	■ 길	문성아 박성혜
■ 고양은평	김경현 김순이 신재훈 김인수 이호인 이정묵 조훈성 전진성 최미선 이경화 한아름 서란아	■ 동대문중랑	박용진 권오석 손지훈 박중우 임혜경 엄미라	■ 이수	김수진 천세민	■ 요섭	김미가 한기원
■ 관악금천	김영하 권배순 박순희 신수일 유승우 이종식	■ 동작	김지민 최일섭 박찬혜 이승희 소신애 조성애 이효주 박명근	■ 이촌	강창구 신동필 주신탭 최재은	■ 하늘	박효정 나지나
■ 광명	김은정 손은경	■ 성동광진	김민경 김제영 김종권 김택성	■ 일산	이승희 이경숙	■ CHPlus	박은영 노소희 방지애 이경미 장선민 이윤정 정민영 허 식 최승애 이명선
				■ 양천	김경희 김용문 이미환 방종애 정낙현 정승욱 조상현 원동준 한다솜 김은정	■ S브릿지	갈미애 오정은 배학주 YOON JAMES HUN 유 준 나영우 이민규 이승현 이선영 정임순 이영신 김주영 정봉수 김선귀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11월 20일(주일) 서빙고 3부 예배

수료 대상자는 오전 11시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수료예배대상자: 9월 1일~10월 31일 사이에 완료 보고한 성도입니다.

● 서빙고	김반석	정요영	김경숙	이규환
	김영우	조미나	김윤희	이수영
■ 권용갑 목사반	김진아	조성은	김은정	이재준
고은경	박하빈	조호정	김종석	이종형
양문호	신동하	최용남	김현욱	정성인
오정택	윤은정	황다경	김현욱	정영성
	이경아		맹신자	정희신
■ 반대섭 목사반	이단희	■ 이비오 목사반	문경숙	조유리
이양숙	이향진	강민경	박소희	조호동
고유미	이혜진	강 희	박봉호	허은경
김경란	장영호	고성주	성미정	
	전경환		손수민	
			엄 준	

크리스마스 선교사 자녀에게 선물 보내기

1. 선물 준비 방법

- 1)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가 주관해서 다락방(순)에서 준비합니다.
- 2) 주소확인: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합니다(국내에 계신 선교사 포함).
※ 보안지역에 계시는 선교사에게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냅니다.
- 3) 편지쓰기: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고, 순원들이 돌아가며 적는 방법도 좋습니다.
※ 편지에 반드시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 및 다락방장의 연락처, 이메일을 기록해서 선교사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4) 선물준비
 - ①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달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② 실용적이고,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적당한 가격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 ③ 우체국 기준에 맞게 소포를 포장하면 됩니다.
 - ④ 작은 선물이라도 선교지에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 ⑤ 해외 송금보다는 현지 선교사님 가정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 ⑥ 현지 도착 날짜를 고려해서 11월 중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2. 선물 준비 시 고려사항

-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2)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서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 ① 자녀의 대상은 고3 및 12학년(2004년 이후 출생)까지입니다.
 - ②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자녀수와 연령 확인 필요): 학용품(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사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 옷, 모자,

책(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3) 보안지역에는 기독교 관련 음반, 서적, 비디오, 액세서리 등의 품목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선교사의 사역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

3. 보안지역 유의사항

- 1) 보안지역이란?
※공산권, 이슬람권 등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금하고 선교사로는 비자가 제한되는 지역.
※보안지역으로 선물을 보낼 경우 기독교 관련 선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편지 내용에도 기독교 관련 용어를 삼가시고, 사용하실 경우 보안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안용어와 보안지역의 자세한 내용은 공동체 리더십에게 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 2) 보안지역 안내
 - ① 공산권
 - ② 이슬람권
 - ③ 힌두교권
 - ④ 불교권
- ⑤ 각 공동체는 기록된 선교지 주소로 소포를 포장해서 선물을 발송합니다. 보안지역(수신주소가 선교단체로 되어있음)의 경우에는 소포를 포장해서 소포비와 함께 선교단체로 발송합니다.

4. 문의

- 1) 각 공동체 및 캠퍼스 선교사역자
- 2) 2000선교본부
02-3215-3208,
ov2000@gmail.com

5. 우체국 요금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

조건/통관/우편물 중 추적(행방조사) 등은 문의 바랍니다.
우정 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epost.go.kr>나 우체국 대표전화(1588-1300)로

6. 선교단체 연락처

단체	주소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1715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3층	031-336-1042
비전빌리지 훈련팀	(1715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2층	031-331-8100
경배와 찬양	(04384)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21-2	02-796-9700
더멋진세상	(04553)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08, 602호	02-2271-2246
바울 선교회	(54308)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화포4길 30	063-254-8418
빌리온 선교회	(08762)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118 2층	02-879-1191
알타이 선교회	(060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2길 22 B01호	02-576-8503
중동 선교회	(139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0, 703호	031-424-2062
중국복음선교회	(04516)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8 한성교회	02-778-3626
BEE KOREA	(069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2길 18	02-822-9480
모퉁이돌 선교회	(0441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41-6	02-796-8846
FMnC 선교회	(06698)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6 세종빌딩 4층	02-848-6251
GBT 선교회	(1394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0 신한대뷰오피스텔 406호	031-421-5324
GMF 선교회	(0797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8길 73	02-2653-4270
GMP 개척선교회	(037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4길 25	02-337-7191
GMTC 선교훈련원	(0797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길 78 한국선교훈련원	02-2649-3197, 070-4066-0114
GO 선교회	(32564)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549 2층	041-852-1040
GP 선교회	(058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8길 17	02-443-0883
HOPE 선교회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서울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	070-4006-5300
Inter-Cp 선교회	(04386) 서울특별시 용산우체국 사서함 120호	070-8787-8800
InterServe 선교회	(136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코오롱트리폴리스 A동 1206호	031-778-7931
OM 선교회	(136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3 현대빌딩 5층	031-698-2372
OMF 선교회	(0655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9길 21 호연빌딩 2층	02-455-0261
SEED선교회	(0668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9길 68, 202호	02-521-0791
UPMA 선교회	(072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1(영등포동2가) 조광빌딩 301호	02-815-4052~4
한국WEC국제선교회	(0677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1길 7-17 송진빌딩 4층	02-529-4552
YWAM(예수전도단)	(088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7나길 14 4층	02-3142-0907
CCC(한국대학생선교회)	(030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1가길 2-8	02-397-6200
안산M센터	(1524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031-491-9650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험이 가시지 않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낯선 땅에서 함께 지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애써보지만,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친구 사귀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제3 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이라고 불릴 만큼 본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의 삶 자체가 기적적이고, 간증인 선교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자녀들에게 큰 용기와 기쁨이 되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십시오 / 이경희 목사(2000선교본부)

선교사 자녀의 간증

하나님 사랑 전하는 ‘꼬마 선교사’

우리 가족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스리랑카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친구들과 선생님, 친척들과 헤어져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부모님이 스리랑카는 더운 곳이라고 해서 사막과 같은 곳일까 상상했었습니다.

저는 스리랑카 ‘와우니아’라는 곳에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해서 심할어, 타밀어, 영어를 배웠습니다. 한동안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저의 볼을 꼬집기도 하고, 제 물건을 던지며 장난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학교에

서 있었던 힘든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참고 이겨냈더니 나중에는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찬을 하기도 하고, 교실 게시판에 저의 그림을 붙이고, 선생님의 부탁을 받아 교실을 꾸미는 일도 했습니다.

저의 꿈은 만화가와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들은 대부분 힌두교를 믿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꼬마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주시지요. / 선교사 자녀 정은송(15세)

서빙고 O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30-8:50(Zoom) 문의: 김인옥 팀장(010-7184-3060)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이강천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미얀마어 14:00 706호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 꿈땅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울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ISB서울빌딩 2층(용산구 한강대로 363-2) 문의: 010-8964-5275 CMN 서울역노숙인 진로팀 모임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점홍은천구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안산온누리M센터 단기 봉사자 모집 내용: 미술전시회 작품 보호 및 안내 장소: 서울 남산도서관 1층 남산갤러리(용산구 소월로 109) 일시: 아래 일시 중 1~2일 봉사(11월 22일(화)~25일(금) 13:00-17:00, 11월 29일(화)~12월 2일(금) 13:00-17:00) 문의: 온누리지역아동센터(031-491-9601) TP41기 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기간: 2022년 12월 26일 2023년 1월 20일 장소: Acts29비전빌리지 자격: 선교지에서 1~2년간 사역하기를 원하는 자 접수: www.visionvillage.org 마감: 11월 25일까지 문의: 031-331-8188, 8213 새가족 만남의잔치 안내 일시: 11월 19일(토) 오후 4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선교관 B2) *식사는 불가하고 퇴실 시 샌드위치와 음료 제공예 84회 성령수련회 일시: 11월 19일 9시~17시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서빙고 버스출발: 오전 7시 30분 신동아쇼핑센터 앞 / 양재 경유) 회비: 3만 원 계좌: 하나은행 573-910005-39805(성령수련회) 접수: 아이스쿨 문의: 황보은선 권사(010-7120-5221)	양재 O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함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케냐 마사이부족 엔게레수나 어린이 후원 1. 5-12세 읽을 수 있는 영어 책(학습지는 받지 않습니다) 2. 운동화(사이즈 190-230) 3. 아이들의 공책, 필기 도구 4. 집에 안 쓰고 가지고 있는 수건(욕실 타월) 보내실 곳: 양재 목회지원실 문의: 임정윤 간사(570-7469) 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 목회지원실 간사 모집 업무: 교회 행정 및 목회사역 지원 문의: 02-570-7447, 7396 *세부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알림판참고
--	---	---	--	--

부천 O32. 322.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드림씨드,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열린새신자예배 2: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기도회 매주 수 오후 8:0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초1~2) 9:00, 11:30 사랑홀 / 초등부(초3~4) 9:00, 11:30 경찬홀 / 소년부(초5~6)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차세대 오전 11:30 믿음홀	대전 O42. 825. 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중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O31. 565. 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택 O31. 651. 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14:2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O32. 437.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주중예배 수요여성예배 10: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동 O2. 475. 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양지 O31. 331. 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5:20 시안홀

세상과 교회의 이슈를 쉽고 신속하게 전하는 시사 보도 콘텐츠

레디온

매주일 저녁 8시 방송 | 매주 월요일 fondant 업로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크리스천들이

어떤 시선으로 보고

해석해야할지 돕습니다.

